

밀쳐둔 타자를 향한 비의적 교신의 기록

《푸른 수염의 첫 번째 아내》《코끼리를 찾아서》

김혜련 | 문학평론가

최근 출간된 몇몇 여성소설에서는 밀쳐둔 타자를 향한 비의적 교신이 감지된다. 이들은 인간 세계의 비루함과 타자와의 관계 속에서 존재의 본질을 찾아헤매는 자아들의 고단함을 환기시킨다. 특히 하성란과 조경란의 경우, 풍부하고 선명한 이미지화에 익숙한 문체로 삶의 균열 속으로 집요하게 파고들면서 추악하지만 엄연한 현실을 생생하게 전달한다. 이 소설들은 우리가 무심히 간과하고 있는 타자의 영역에 대한 교신의 기록이다.

분명, 주체의 자명성에 대한 회의, 자명한 실체로서의 현실에 대한 회의는 새삼스러운 일이 아니다. 개인적 주체로서의 '나'와 토대로서의 현실이 근대가 주조한 이데올로기적 구성체에 불과하다는 인식이, 그간 '현실'과 '나'의 존재론적 위상을 찾아헤매던 모든 문학적 동력을 혼란스럽게 한 이래 때로는 현실적인 시공간을 넘나드는 자유로움으로, 때로는 시공간의 단절과 은폐 속에 도사리고 있는 균열을 파고들어가는 몸짓으로, 환상과 환영 속에서 마음대로 몸을 바꿔가며 현실을 부정하거나 혹은 현실과 허상의 경계를 지우려는 서사적 비명들도 더 이상 낮설지 않다.

타자와의 관계 속에서 존재의 본질 찾아나서

그럼에도 최근 출간된 몇몇 여성소설에서는 삶의 기척을 향한, 밀쳐둔 타자를 향한 비의적 교신이 감지된다. 인간 세계의 비루함과 타자와의 관계 속에서 존재의 본질을 찾아헤매는 자아들의 고단함을 환기시키는 그들에게서, 그간 여성소설을 지탱시켜온 걱정에 휩싸인 독설이나 내밀한 독백은 찾기 어렵다. 가족이라는 시스템과 가부장적 사회의 억압 속에서 여성의 정체성을 찾기 위해 몸부림치며 쏟아내던 절규나 회의, 절망의 토로도 들

리지 않는다.

실제로 최근 여성소설들은 인물의 심리나 행동, 상황의 한컷 한컷을 상세하게 장면화해 제시하고 있는 시각적 이미지의 전시장이다. 방음유리 부스 안의 인물들을 관람시키는 듯한 냉정한 서술 태도는 일체의 언어 부수적인 표현, 강약이나 어조, 성량조차 완벽하게 배제해 어떤 신음도 고통도 내뿜지 않은 채, 희망도 은총도 없는 세계를 잔혹하게 펼쳐놓을 뿐이다.

특히 이 글에서 다룬 하성란과 조경란의 경우, 과도할 정도로 풍부하고 선명한 이미지화에 익숙한 그들의 문체는 삶의 균열 속으로 집요하게 파고들면서 추악하지만 엄연한 현실을 생생하게 전달한다. 그들은 일탈을, 환상을, 탈주를 가능케 하는 것이야말로, 평범하고 덩덤한 세계 속에 도사리고 있는 지극히 위태롭고 불온한 징후들이야말로 결핍과 상처의 근원에 포박된 우리들의 일그러진 삶이라고 상기시키려는 것이 아닐까.

다양한 소설적 장치로 현실의 불온성 드러내

솔직하게 말해서 현실의 세목들을 묘사함으로써 사실성을 각인시키려는 하성란의 노력은 최근 소설집 《푸른수염의 첫 번째 아내》(창작



하성란 지음
창작과비평사/A5신/298면/8000원

조경란 지음
문학과학사/A5신/306면/8500원

과비평사)에서 새삼스럽게 주목할 만한 현상은 아니다. 오히려 차츰 현미경적인 집착으로 전락할 수도 있을 묘사 방식을 추리와 반전이 라는 흥미진진한 기법으로 보완하고 다양한 앵글의 변화로 서사에 입체감을 부여함으로써 불가해한 이 세계의 불온성을 좀더 섬뜩하게 드러낸다는 사실이 주목을 끄는 점이다.

특히 이번 소설집은 일상적 인물들에 도사리고 있는 위태로운 심리를 탐문하던 이전에 비해 서사적 자장을 확대해 화성 씨랜드 화재 사건(《별 모양의 얼룩》), 의령 순경 총기난사 사건(《파리》), 위장결혼과 동성애(《푸른수염의 첫 번째 아내》), 무면허운전과 뺑소니사고(《개망초》) 등 현실적 논리로 해석하기 힘든 사회 현상들을 한컷 한컷 도려내 “아무런 문제가 없어 보이고” “무엇보다 잘 알고 있”(《푸른수염의 첫 번째 아내》)다고 자신하는 삶이란 것이 기실은 불안하고 비논리적이며 조종

능력을 상실한 어떤 것임을 확인시킨다.

이러하면, 결혼을 앞둔 여자가 약혼자의 친구들과 술자리를 같이 한 밤 임신을 하게 되는데, 그 밤을 함께 보낸 약혼자는 물론 친구들까지 여자와 잠자리를 한 상대가 자기가 아니라며 하나같이 발뺌하고 오히려 여자의 도덕성을 의심하면서 여자를 파혼의 지경으로 몰고간다거나(〈기쁘다 구주 오셨네〉), 시골의 한 여고생이 친구를 만나러 가는 도중 무뎠던 난폭 운전 차량에 치인 후, 강물에 유기돼 결국 죽는다거나(〈개망초〉), 궁벽한 시골의 파출소로 부임한 순경이 마을 전체의 오해와 편견이 빚어낸 음모에 의해 원하지 않는 여자와 강제로 결혼하고 결국 살인자로 돌변하고 마는(〈파리〉) 숨가쁜 상황들은 표면적으로는 평범하고 친숙해 보이는 삶이 도처에 복병처럼 웅크리고 있는 위험들로 인해 어느 순간 불행의 나락으로 떨어질 수 있는 허약한 구성체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각인시킨다. 늘 아주 나쁜 꿈을 꾸고 있는 듯한 그의 인물들은 그래서 괴롭다. “도대체 나는 무슨 잘못을 했을까”(〈푸른수염의 첫 번째 아내〉).

언제 어디서 출몰할지 모르는 위험에 대한 두려움이 때로는 화재사건으로 아이를 잃었으면서도 아이가 혹시 살아 있을지도 모른다고 믿는 어머니의 환각(〈별모양의 얼룩〉)으로, 남편이 위층 아이들의 유괴범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하는 아내의 환상(〈고요한 밤〉)으로 다양하게 변주되고 있는 그의 소설적 상황들은 매혹적이기까지 하다. 어떤 경우에도 감정을 노출시키지 않는 냉정한 관찰자의 시선으로 일관하면서 애매함의 장치, 컬트영화적 기법, 추리적 요소라는 미적 장치를 능란하게 재구성하고 있는 이번 소설집은 우리가 무심히 간과하고 있는 타자의 영역을 새삼 환기시킨다는 점에서 문제적이다.

주변인의 상실에서 자라나는 자아의 상처 묘사해

조경란의 최근 소설집 《코끼리를 찾아서》(문학과학지성사)에서는 재현의 원리에 기초한 독법에 의지한 독자라면, 그의 소설과의 행복한

“(하성란과 조경란의 소설들은) 일탈을, 환상을, 탈주를 가능케 하는 것이야말로, 평범하고 덤덤한 세계 속에 도사리고 있는 지극히 위태롭고 불온한 징후들이야말로 결핍과 상처의 근원에 포박된 우리들의 일그러진 삶이라고 상기시키려는 것이 아닐까.”

만남은 기대하지 말아야 한다. 삶과의 손쉬운 화해를 일삼는 독자라면, 조경란의 인물들이 보이는 절망에 의구심을 품을지도 모른다. “깜깜한 배경 속에서 상반신을 드러낸 채 팔짱을 지른 여자가 가장 어두운 원권의 어느 한 곳을 뚫어지게 응시하”는 그림처럼, 그가 보여주는 세계는 “영적이면서도 숭엄하고 슬픈, 어딘가 막연하면서도 동시에 추측과 미련을 남기는 듯”(〈라메르 모델 하우스〉)한 비의적(秘意的) 아우라를 발산한다. 안개 김 캄캄한 바닷가의 방죽 위에 장님 사내를 버려둔 채 돌아오는 오정희식 배경과도 소통하는 듯 여겨지는, 자폐의 삶을 자신의 근원적인 삶의 조건으로 받아들이고 살아가는 단자화된 내면 풍경, 한낱의 몽롱한 악몽을 꾸고 있는 듯한…

조경란 소설의 인물들이 보이는 실의와 절망, 자살, 떠남과 돌아오지 않음 등의 이유들은 미술학원 원장이 자살하면서 녹음한 테이프에서도(〈우린 모두 천사〉), 소음으로 인해 고통을 겪다 죽은 ‘그’가 생전 그녀에게 던지는 ‘마지막 질문’에 대해서도(〈그는 마을의 이발사〉), 화만 내는 시나리오의 주인공이 짓는 유일한 마지막 웃음(〈마리의 집〉)에서도 밝혀지지 않지만, 깊숙이 박혀 있는 생래적 상처가 ‘상실감’에 뿌리를 두고 있다는 사실은 분명하다.

친할머니와 고모의 자살과 삼촌의 사라짐, 조카의 엄마이자 나의 친언니의 죽음, 조카 애인의 죽음, 언니의 딸을 친딸처럼 키운 이모가 잊지 못하고 있는 연인의 자살, 홀연히 사라진 언니 다육을 기다리는 미술원장 김요옥의 자살, 벌목꾼의 사라짐, 정미림의 사라짐 등이

번 소설집을 이루고 있는 7편의 소설에는 죽음과 실종이라는 ‘사라짐’의 흔적으로 축축하다. 상실감은 평범한 일상에서 “죽은 친할머니도, 연속이 고모도 그리고 도성이 삼촌의 모습도 아닌 웬 커다란 코끼리”의 모습으로 나타나는가 하면, “누군가 내 이마를 짚는 투박하고 찬 손의 느낌”으로 불쑥, 출몰하기도 한다. 조경란의 인물들에게 사랑하는 사람이 존재하지 않는 세상이란 ‘라메르 모델 하우스’나 ‘마리의 집’, 잠시 동안 빌려 사는 ‘이현 아빠의 집’처럼 나의 온전한 공간이 아닌 ‘가짜의 집’, 허상의 공간일 뿐이다. 그들은 때때로 나무들의 교신에 감동하거나, 그간 부정했던 검은색도 빛의 색임을 깨닫기도 하고, “어디든 사람이 살고 새가 울고 나무가 자라고 친구가 찾아온다면 그곳이 바로 집”(〈김영희가 흘린 눈물 한 방울〉)이라고 읊조리기도 하고 한걸음 나아가 “네가 부르면 그는 네 목소리를 알아듣곤 곧장 심장을 쿵쿵거리며”(〈동시에〉) 달려올 사랑의 기억에 호소하고도 있지만, 상실로 인한 충격과 세상으로부터의 소외와 단절감은 그들의 도벽을, 불면증을, 자살충동을 강화할 뿐이다.

평온한 일상적 삶 뒤에 감춰진 상처와 불안, 좌절된 갈망으로 “읍,읍,읍” 울며 배회하는 인물들의 내면 풍경을, 사실의 객관적 전달보다는 “번지는 듯한 죽은 자춧빛”(〈우린 모두 천사〉)으로 채색하는 조경란의 글쓰기는 “어둠에 가려 있다 마침내 빛을 되찾은 수천년 전 잊혀진 불나무”(〈라메르 모델 하우스〉)를 향한 교신의 행위가 아닐까. ■

김혜련씨는 동국대 국문과를 졸업하고 동대학원에서 박사학위를 받았다. 현재 동국대 국문과에 출강하며 문학평론가로 활동중이다.